사유하기

1. 성좌로서의 이념: 벤야민 사유의 지도

Dr. 강수미 (미학, 미술비평)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텍스트 읽기를 통한 '이미지-의미'의 생산>

1강

1. 전체성과 개별성, 이념세계와 경험세계

벤야민의 사유에서 초기와 후기를 나누는 분기점 성격의 저작 『독일 비애극의 원천 *Ursprung des deutschen Trauerspiels* (1923~1925년 집필, 1928년 로볼트 출판사 출간, 이하 『비극서』)』은 그의 철학과 미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그는 이 책의 서문인 「인식비판서론」의 모토로 다음과 같은 괴테의 말을 인용했다.(Ⅰ/1, 207)[1]

"전체라는 것은 지식에서든 성찰에서든 조립될 수 없는데, 그것은 지식에서는 내부가, 성찰에서는 외부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에서 모종의 전체성과 같은 것을 기대한다면 그 학문을 예술로서 사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도 우리는 그 전체성을 어떤 일반적인 것, 과도하게 넘쳐나는 것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되고, 예술이 각각의 개별 예술작품에서 재현되듯이 학문 역시 각각의 개별 대상에서 그때그때 온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괴테는 위와 같은 논설을 통해 학문에서 전체성을 기대한다면, 그 학문은 예술의 정체와 형성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예술이 각각의 예술작품 속에서 '예술'의 이념이라는 전체성을 드러내듯이, 학문 또한 개별성을 포기하지 않을 때(개별 대상의 존재까지 완전하게 해명함으로써) 전체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벤야민은 괴테의 이러한 주장을 서두에 내세움으로써 '전체성과 개별성의 변증법적 종합', 철학의 과제로서 '이념을 통해 드

[1] *Johann Wolfgang von Goethe: Materialien zur Geschichte der Farbenlehre*를 Walter Benjamin, *Ursprung des deutschen Trauerspiels,* Ⅰ/1, 207에서 재인용. 최성만 . 김유동 역, 『독일 비애극의 원천』, 파주: 한길사, 2009, p. 35.

러나는 진리의 서술/재현(인식에 의한 진리의 소유가 아닌)'이라는 자신의 이론적 입장과 저술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는 당대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을 배면에 깔고 있으며, 예술을 이념세계와 경험세계의 변증법적 종합으로서 중시하는 벤야민 자신의 철학적이며 미학적인 기반과 그 연구 성과를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그 기반에 대한 규정으로 읽을 수 있다.

"경험적 세계가 스스로 이념세계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용해되는 식으로 기술하는 구상을 훈련하는 일이 철학자의 과제라면, 그 철학자는 연구자와 예술가 사이에 고양된 중간지점을 획득하게 된다." (Ⅰ/1, 212; 42)

여기서 우리는 경험의 세계를 이념의 본질적 요소로 용해시켜 서술하는 일에 자기 철학의 지향점을 상정한 벤야민의 모습을 본다. 그가 철학자를 연구자와 예술가 사이의 중간지점에 상정한 것은 바로 그 '이념 속에 경험의 녹아듦' 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예술가가 경험현실 속에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궁극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처럼, 또한 연구자가 개념으로 세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념의 영역을 드러내는 것처럼 철학적 훈련을 한다.[2]

2. 초기 사유와 후기 사유의 불/연속성

물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벤야민이 『비극서』를 쓰던 1920년대 중후반부터 유물론에 영향을 받았고,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의 연구대상으로서 이념세계와 경험세계는 현실 사회 역사적 맥락으로 확장됐으며, 이념 서술의 대상이 되는 예술 또한 당대 제반 조건과의 상관성 속에서 보다 분명하게 논의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벤야민이 1928년 출판한 『일방통행로 *Einbahnstraße*』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감지되며, 후기 사유를 관통한다. 즉 이때부터 벤야민은 신학적 . 형이상학적 세계와 지난 시대의 소외된 예술작품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세계에 잔존하는 일회적인 것들과 극단들(die Extreme, 일반적인 것이 아닌 가장 예외적이고 소외된 현상들)의 짜임관계(Konstellation)를 고찰함으로써 '현실 사회 속 예술의 새로운 정체성과 기능'을 사유하기 시작한다. 요컨대 사유 속에서 극단들의 구성이 아니라, 물질적 실체와

[2] 강수미, 『아이스테시스: 발터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파주: 글항아리, 2011, pp. 44-45. 이하 이 책은 인용 표기 및 주석 표기 없이 본문에서 참조할 것임.

사유의 구성이다. 그런 점에서,『일방통행로』는 초기 벤야민 사유의 형이상학적 경향이 후기 유물론적 사유로 넘어가는 과정의 실험적 모색이다. 동시에 그의 철학과 예술비평에서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계기'가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글로 가시화된 논쟁적 저작이다.

하지만 이 책이 1924년경 『비극서』의 초고를 완성한 직후 구상하기 시작해 이후 『비극서』와 같은 해 출판됐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한다. 저술 기간이 일정 정도 겹치는 점, 비슷한 시기 출판됐다는 점은, 벤야민이 자신의 사유 지평에서 양자(직접적으로 말하면, 절대적 진리의 추구와 경험현실의 구제를 위한 정치성)의 어느 한 쪽도 부정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벤야민 전체 저술을 보면, 사유의 모티브 영역은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극단들로 구성된 성좌로서의 이념(Idee der Konfiguration)을 서술한다는 철학적 입장은 유지되었다.

3. 이념 서술의 방법론

구체적으로 이념은 어떤 사유의 방법에 따라 서술될 수 있는가?

"모자이크는 개별적이고 동떨어진 것들이 모여 나타난다. 초월적 힘을, 그것이 성상이 지닌 힘이든 진리가 지니는 힘이든 이보다 더 강력하게 가르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유 파편들이 지니는 가치는 그 파편들이 근본구상에 견주어 측정될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결정적이 된다. 그리고 모자이크의 가치가 유리용질의 질에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현의 광휘는 그러한 사유 파편들의 가치에 달려 있다." (Ⅰ/1, 208; 37-38)

벤야민 철학과 미학의 정신적 제자라 할 수 있는 아도르노는 그 스승을 두고 "다층적이고 굴절이 큰 작가([ein] vielschichtig[er] und gebrochen[er] Schriftsteller)"[3]라 했다. 그만큼 벤야민의 사유가 복합적인 동시에 독창적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이를 『비극서』의 「인식비판서론」에서 철학 논고(Traktat)와 이념의 서술(Darstellung)에 대해 논하는 초기 벤야민의 주장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이념을 서술하는 사유를 다음 네 가지의 방법론적 양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했다.

첫째 연역의 연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주관적 진행을 부단히 중단함으로써 철

[3] Theodor W. Adorno, "Charakteristik Walter Benjamin", in: *Über Walter Benjamin*, hrsg. von Rolf Tiedemann, Frankfurt a. M.: Suhrkamp Verlag, 1990, p. 13.

학적 고찰이 더욱 객관적인 질서를 따르도록 한다. 둘째, 사태 자체에서 매번 새롭게 사유를 시작함으로써 논의를 지구력 있게 끌고 간다. 셋째, 인과관계에 입각한 피상적 보편주의를 피하고 극단의 모티브들을 취하여 논의를 반복함으로써 대상 자체의 개별성과 객관성을 엄밀히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이분법의 도식에 따라 부정과 배제의 논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분법에 새로운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논의가 치밀한 긍정성으로 풍부해지도록 한다.(Ⅰ/1, 212; 43)[4]

이러한 사유 방법론을 기반으로, 벤야민은 자기 철학의 과제로 상정한 '성좌로서의 이념과 진리의 서술'을 실천했다. 이는 그만의 "특정한 서술이론"으로서, 구체적 형식으로 따지자면, 철학 논고, 인용, 논평, 비평, 몽타주, 단편이라는 방식[5]으로 후기 저작에까지 유효하게 지속되었다.

---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철학적 양식의 개념은 자신의 요청들을 가지고 있다. 그 요청들이란, 연역의 연쇄에 반대되는 중단의 기법, 단편(斷片)의 제스처에 반대되는 논설의 지구력, 천박한 보편주의에 반대되는 모티프들의 반복, 부정하는 논쟁에 반대되는 치밀한 긍정성의 풍부함이다."

[5] Dietrich Thierkopf, "Nähe und Ferne-Kommentare zu Benjamins Denkverfahren", in: *Text+Kritik*, Hrsg. von Heinz Ludwig Arnold, 1979(31/32), p.3.